

국제石油시장동향과 전망

— 産業研究院 —

玉際原油價格이 또 다시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금년 들어 예상의 강한 회복세를 보여 오던 現物油價는 4월 말을 고비로 현저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소련, 이집트 등 일부 非OPEC 產油國들은 잇따라 自國產石油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이러한 油價하락은 최근 선진국들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石油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계절적으로 石油非需期에 접어들었음에도 非OPEC 產油國들의 石油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까지 비교적 생산을 자제하던 OPEC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섬과 동시에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現物油價의 하락과, 경쟁관계에 있는 非OPEC 產油國들의 油價인하는 OPEC (石油輸出國機構)의 公示價에 대한 인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OPEC 產油國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석유생산을 줄여 公示價를 고수하려 하기 보다는 公示價를 인하하여 석유생산 및 수출을 증대시키는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로 예정된 OPEC 정기총회에서 OPEC가 公示價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석유수요는 지난 80년 이후의 감소추세에서는 벗어났으나 매우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油價는 향후 2~3년간 약세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油價는 非OPEC 산유국의 공급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OPEC의 시장점유율이 다시 높아지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가서야 점차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油價하락세 지속

금년 1월 말에 열렸던 OPEC 총회 이후 4월 중순까지 예상의 강한 회복세를 보여 왔던 現物油價가 4월 말 이후 현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런던市場의 경우, 北海產石油의 代表油種이라 할 수 있는 브렌트(Brent)油 現物價格은 유럽에 흑한이 지속되고, 소련의 對西方石油輸出이 부진하던 지난 2월말에 배럴당 29달러까지 치솟아 公示價(배럴당 28.65달러)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5월 말 현재 배럴당 26달러 전후에 머물러 있다. 과거 OPEC의 基準油種이었던 사우디產 輕質油(Saudi Arabian Light) 現物價格도 지난 3월말~ 4월초에 公示價(배럴당 28달러) 수준에 거의 육박하였으나, 현재 배럴당 27달러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이 밖에 국제석유시장에서 대부분 油種의 現物價格이 4월말 이후 현저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現物油價의 하락세를 반영하여 일부 산유국들이 自國產石油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나섰다. 소련은 지난 5월 6일 우랄스(Urals)油 5월 수출가격을 배럴당 27달러로 1달러 인하하였으며, 이집트도 모든 油種의 수출가격을 일률적으로 배럴당 75센트 인하,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하였고 오만도 4월 수출가격을 소폭 인하하였다.

이러한 油價하락의 근본원인은 석유수요가 침체된 가운데 최근 공급이 증대되어 세계석유시장의 공급과잉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석유시장은 지난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로 형성된 高油價로 인해 지난 80년 이후 석유

〈表 - 1〉 世界の産油量¹⁾ 추이

(單位：千B/D)

	1983	1984	1984			1985		生産能力 ²⁾
			10	11	12	1	2	
自由世界	38,268	39,165	38,822	38,902	37,064	37,339	38,914	...
OPEC	17,595	17,490	16,590	16,805	16,630	15,165	16,710	28,430
사우디	5,085	4,645	4,090	3,990	3,590	3,490	4,025	9,300
이란	2,426	2,187	2,000	2,400	2,500	1,400	2,100	3,500
이라크	1,005	1,203	1,200	1,250	1,250	1,250	1,250	1,300
쿠웨이트	1,077	1,117	1,090	990	990	990	1,125	2,000
UAE	1,147	1,155	1,060	1,160	1,210	1,160	1,160	2,160
카타르	295	399	410	280	260	280	290	600
베네수엘라	1,790	1,811	1,800	1,725	1,770	1,670	1,700	2,600
나이지리아	1,241	1,389	1,600	1,600	1,600	1,600	1,700	2,200
리비아	1,076	1,071	1,000	1,000	1,000	1,000	1,000	1,700
인도네시아	1,385	1,468	1,430	1,350	1,450	1,310	1,340	1,700
알제리	675	638	650	650	600	600	600	900
가봉	157	152	150	150	150	150	150	200
에콰도르	236	253	240	260	260	260	270	270
非OPEC	20,673	21,675	22,112	22,097	22,264	22,174	22,204	...
美國	8,674	8,728	8,782	8,792	8,796	8,870	8,912	...
北海産油國	2,944	3,262	3,440	3,430	3,475	3,490	3,425	...
멕시코	2,691	2,764	2,673	2,745	2,833	2,644	2,687	...
共産圈	14,388	14,458	14,557	14,552	14,562	14,022	14,017	...
소련	11,875	11,862	11,900	11,900	11,900	11,360	11,355	...
中共	2,093	2,171	2,222	2,222	2,222	2,222	2,222	...
計	52,656	53,623	53,389	53,554	53,456	51,361		

註：1) 액화천연가스(LNG) 제외.

2) 最大持續可能能力(maximum sustainable capacity)임. 이는 수개월에 걸쳐 물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設備能力의 90~95%에 상당함.

〈資料〉 Petroleum & Energy Intelligence Weekly Inc.,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各號.

수요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공급과잉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80년 하루 3,000만 배럴을 상회하던 OPEC의 석유생산이 현재에는 하루 1,600만 배럴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OPEC의 잉여생산 설비능력은 하루 1,000만 배럴을 능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들어 세계석유수요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國際에너지機構(IEA)는 自由世界の 石油소비가 금년 1/4분기 중 하루 4,770만 배럴로 전년동기비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2/4분기와 3/4분기에는 소비가 더욱 감소하여 각각 4,530만 배럴, 4,550만 배럴로 떨어진 뒤 4/4분기에 가서야 4,720만 배럴

로 회복되어 금년 전체로는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하루 4,640만 배럴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에 非OPEC産油國들의 석유공급은 계속 증가하여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소련의 對西方 石油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英國, 노르웨이, 美國 등지의 석유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中共, 호주 등도 새로운 石油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IEA는 금년 중 非OPEC의 석유공급이 전년보다 하루 70만 배럴이 늘어난 2,810만 배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세계석유수요가 침체된 가운데 공급은 더

욱 증대되어 공급과잉을 심화시킴으로써 油價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OPEC의 增産 및 가격할인

특히 최근의 油價 하락세는 OPEC 회원국들이 할당된 生産限度 이상으로 증산하거나 公示價보다 낮은 가격으로 油價를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OPEC 각국들이 금년 초에는 할당된 생산한도와 公시가체계를 비교적 잘 준수함으로써 유가는 강한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석유수요가 감소되는 등 市況이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제정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이 생산을 크게 늘리는 한편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販路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생산한도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나이지리아이다.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최근 하루 17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 할당된 생산한도 145만 배럴¹⁾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이란, 아랍에미레이트(U. A. E.) 등도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가격할인의 대명사는 이란이다. 4년 여의 소모

전을 치르고 있는 이란은 이라크의 공습으로 격감된 석유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전의 주 수출기지였던 하르그(Kharg)섬에서부터 비교적 안전한 시리(Sirri)섬으로 석유를 운반,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公시가 이하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거의 대부분 OPEC 회원국들이 비공개적으로 가격을 할인 판매하고 있어 石油業界에서는 公시가대로 판매하는 나라는 사우디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산유국들의 석유바터거래(Oil barter deal)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油價약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석유바터거래란 산유국이 석유를 수출한 대금으로 現物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바터거래는 당사국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할당된 생산한도에 구애받지 않으며, 가격할인판매도 가능하여 판로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최근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5월 초 이란은 우루파이와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석유와 농산물 바터거래를 체결하였고, 사우디도 14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구입교섭을 진행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中東리포트(Mideast Report)誌는 최근호에서 OPEC 석유생산량의 15%인 하루 250만 배럴의 석유가

〈表-2〉自由世界 石油需給 추이 및 전망²⁾

(單位：萬B/D)

	1975	1980	1984	1985	1986	1987
● 消 費						
O E C D	3,687	3,490	3,006	3,032	3,060	3,122
O P E C	171	220	453	474	509	533
非 產 油 開 途 國	659	1,020	901	919	970	999
計	4,517	4,730	4,360	4,426	4,539	4,653
● 供 給						
O E C D	1,237	...	1,652	1,670	1,660	1,657
O P E C	2,643	2,690	1,745	1,757	1,864	1,953
對 共 産 圈 純 輸 入	128	90	108	108	100	100
其 他 ²⁾	391	...	855	991	915	863
計	4,399	4,530	4,360	4,426	4,539	4,653

註：1) 액화천연가스(LNG) 포함.

2) 在庫增減 포함.

〈資料〉KIET, 「國際經濟統計年報」, 1983.

WEFA, World Economic Outlook, 各號.

바터로 거래되고 있으며, OPEC 13개 회원국중 8개국이 바터거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가격은 공시가격보다 40~50센트 아래인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OPEC公示價 인하가능성

세계석유시장에서 現物油價가 公示價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非OPEC 산유국들이 잇따라 石油가격을 인하하고 있어 OPEC에 대한 公示價인하압력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油價를 支持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다음 몇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사우디를 비롯한 OPEC의 減産이다. 사우디는 5월 들어 現物油價가 크게 하락하자 산유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지난 4월 중 하루 350만 배럴을 상회했던 사우디의 산유량은 5월에 하루 250만 배럴로 격감하여 17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西方이 보유한 在庫油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IEA는 西方의 민간기업이 보유한 在庫油는 4월 1일 현재 3억 2,240만톤, 향후 75日 消費分으로 지난 79년 이후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적은 在庫油를 보충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면 油價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의 減産이 상당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사우디의 감산만으로 油價하락을 방지하기는 힘들다. 또한 여타 OPEC회원국들도 대부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 생산량을 감축시켜 油價하락을 방지하기보다는 油價를 인하하여 생산 및 수출을 증대시키는 쪽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在庫油 보충을 위한 수요증가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가하락을 기대하여 在庫油 구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在庫비축이 시작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유가하락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일부 산유국들의 石油政策 변화도 油價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英國이 國營石油會社(BNOC)를 해체, 公示價제도를 철폐하고 市場價格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캐나다도 지난 6월 1일부터 石油수출가격에 대한 정부통제를 철폐했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OECD의 輸入石油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OPEC에 대해 油價인하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조만간 OPEC가 公示價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사우디도 지금까지 公示價를 고수하겠다는 종래의 방침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公示價를 인하할 수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公示價가 인하된다면 그 시기로는 오는 7월 5일 OPEC定期總會를 전후한 하절기가 유력하다. 그러나 인하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油種間 가격차 조정설도

또한 OPEC가 輕質油와 重質油의 價格差(Differential)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OPEC는 지난 해 12월과 금년 1월의 총회에서 사우디產 重質油 公示價를 배럴당 0.5달러 올리고, 사우디產 輕質油 公示價를 1달러 내림으로써 價格差를 종전의 3달러에서 1.5달러로 축소시켰었다.

그런데 5월 들어 重質油 現物價格은 公示價를 배럴당 1달러 이상 밀돌고 있다. 重質油 現物價

(表 - 3) 展望機關別 平均公示價 추이 및 전망

(單位: \$/B)

	1975	1980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DRI	11.02	30.46	28.58	26.75	26.50	26.60	28.00	30.00	32.50
WEFA	11.02	30.90	29.09	27.80	27.63	27.64	30.26	32.79	34.89
NIESR	29.19	28.75	30.76	—	—	—	—

(資料) DRI, European Long-Term Review, March 1985.

WEFA,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85.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Feb. 1985.

格은 ① 英國 石炭勞組과업의 종결로 그동안 늘어났던 重質油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② 소련의 對西方 石油수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③ 美國의 휘발유在庫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重質油 公示價는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감이 든다. 따라서 OPEC가 重質油 公示價 인하를 포함한 價格差 제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油價의 하락세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石油전문가들의 油價전망은 배럴당 20달러에서 40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일부기관에

〈表 - 4〉 OPEC의 經常收支 추이

(單位: 百萬달러)

	1975	1980	1981	1982	1983
사우디아라비아	14,385	46,904	44,064	-1,100	-19,433
쿠웨이트	5,927	16,159	14,675	5,662	5,262
U. A. E.	...	11,582	10,270	7,655	4,903
카타르	...	3,212	3,069	1,169	410
인도네시아	-1,109	2,810	-816	-5,458	-6,442
알제리	-1,661	225	80	-171	-310
리비아	...	8,285	-2,894	2,978	-650
이란	4,707	11,548	9,534	-13,679	-7,315
이라크	2,705	-4,599	-2,737	3,580	3,468
베네수엘라	2,171	4,749	4,026	-4,222	2,500
나이지리아	42	4,413	-5,655	-7,287	-927
에콰도르	220	-672	-1,027	-1,215	-128
가봉	-9	350	372	285	37
O P E C 計	...	104,966	53,893	-11,804	-18,625

〈資料〉 The Arab Petroleum Research Center, Arab Oil & Gas, 各號.

〈表 - 5〉 OPEC의 對外支給準備¹⁾ 추이

(單位: 百萬SDR)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사우디아라비아	19,812	18,376	27,695	26,787	26,064	25,248
쿠웨이트	1,274	3,080	3,495	5,360	4,959	4,683
U. A. E.	844	1,580	2,751	2,008	1,979	...
카타르	83	269	314	350	367	...
인도네시아	499	4,227	4,308	2,851	3,552	4,869
알제리	964	2,958	3,175	2,196	1,796	1,494
리비아	1,790	10,264	7,735	6,400	4,985	3,708
이란	7,468	7,977
이라크	2,186
베네수엘라	7,177	5,178	7,014	5,964	7,300	9,081
나이지리아	4,772	8,025	3,347	1,462	946	1,492
에콰도르	231	794	543	276	616	624
가봉	125	84	171	283	179	...
O P E C 計	47,225	68,299	73,855	67,846	67,194	69,184

註: 1) 年末基準.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 動向分析 □

서는 3차 석유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파리바(Paribas) 은행은 美國의 강한 성장세가 세계로 확산되고, 달러貨가 急落한다면 油價가 지난 80~81년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난 1, 2차 석유위기가 모두 經濟外的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3차 석유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망은 油價가 향후 2~3년간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첫째, 세계석유수요가 앞으로도 미약한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석유수요는 아직도 高油價의 영향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높아지더라도 石油수요 증가세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非OPEC產油國들의 석유생산은 87, 88년

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北海, 소련 등지의 석유생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공, 호주 등지에서의 석유생산도 앞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OPEC의 生産自制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非OPEC 산유국들의 생산증가에 대처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OPEC가 결속을 강화하여 생산을 自制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라크는 파이프라인의 新·增設로 86년까지 수출능력을 두 배 이상 높일 계획이다. 또 이란·이라크戰이 종식될 경우 이들 양국으로부터 석유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油價는 수요증가가 현저해지고, 非OPEC의 석유공급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0년대 말~90년대 초에야 물가상승률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註：1) 나이지리아에 할당된 생산한도는 원래 하루 130만 배럴이었는데, 84년 7월 총회에서 하루 145만 배럴로 잠정적으로 증가되었음.

□ 產油國動向 □

BNOC, 6月 Brent 原油購買價 引下提議

英國 國營석유회사(BNOC)는 6월 Brent 原油 購買價를 5월의 27.90\$/B에서 26.65\$/B로 인하 제의했다고 업계소식통들이 밝혔다. 업계관계자들은 BNOC가 6월 Brent 原油 購買價를 26.50\$/B 수준으로 인하 제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BNOC는 단계적인 폐지에 앞서 油價를 현물 시장가격에 연계시키면서 운영규모를 축소해왔기 때문에 BNOC의 이번 購買價 인하제의가 시장 안정을 위협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BNOC가 얼마전까지 80만b/d의 원유를 현물시장에 방출했지만 지금은 30만b/d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BNOC는 6월 Forties 原油 購買價를 5월의 27.90\$/B에서 26.65\$/B로, Ninian 原油 購買價는 27.75\$/B에서 26.50\$/

B로 인하 제의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편 베네주엘라의 OPEC관련 책임자인 Rossi Guerrero씨는 지난 6월 6일 AP-DJ通信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北海產 原油價 인하가 石油市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英國 國營석유회사(BNOC)의 Brent 原油價 1.25\$/B 인하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BNOC는 단계적인 폐지단계에 있으며 거래량도 20만b/d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상황은 작년 英國과 노르웨이의 油價 인하가 OPEC의 생산쿼터를 1,750만b/d에서 1,600만b/d로 감축시키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했던 작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北海產 원유가인하가 반OPEC전략의 일부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